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 첫 발 댔다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80억원 투입...2026년 개관 목표
전시실·수장고·편의시설 등 조성

여수시는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상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면심사, 3월 22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부지 현장평가, 4월 28일 최종심사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립미술관 신축 사업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동 망마공원 내 1만5,7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6,700㎡의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 및 교육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시립미술관 건립의 첫 관문을 넘어선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건

축 및 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미술계를 포함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이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여수시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미스 전남 진·선·미가 상금 전액을 (재)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보성군 제공

미스 전남 진·선·미, 보성장학재단에 상금 기탁

보성군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3년 제67회 미스코리아 전남 선발대회' 진, 선, 미로 선발된 김수지 씨, 박나연 씨, 임지원 씨가 상금 전액을 (재)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학금 기탁은 지난 7일 한국문화공원에서 열린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폐막식에서 진행됐다. 보성군은 이번에 선발된 미스 전남 진, 선, 미를 보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미스 전남 진, 선, 미는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치러졌다. 2023 미스 전남 진, 선, 미인 김수지 씨, 박나연 씨, 임지원 씨는 앞으로 2023 보성군 관광 캠페인 영상 촬영 등 지속적인 지역 관광 활성화 역할을 하게 된다.

미스 전남 진으로 당선된 김수지 씨는 "평소 예체능 후배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 박나연 씨는 "미스 전남 선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성군장학재단에 상금을 기탁했다"며 "보성군 학생들이 미래 보성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미 임지원 씨는 "전남 미스코리아로 첫 활동을 기부 활동으로 시작하게 돼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의 홍보대사로서 보성의 다양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개할 전남 미스코리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수해대비 모의훈련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 연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지난 10일 곡성군 오곡면에 축조된 오지제 제방에서 '2023년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영산강홍수통제소, 곡성군, 곡성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내 국가하천공사 현장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지제 제방은 섬진강에 오곡천, 곡성천, 고달천 등 3개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2020년 8월에 수해가 발생해 영산강청에서는 홍수취약지구로 지정, 중점관리하고 있는 지구이다.

이번 훈련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오지제 상류에 있는 세월고 월류, 하천수가 농경지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문의 미작동 상황, 오지제 제방유실에 따른 응급복구 등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수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2022년에 구축한 스마트하천관리시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0일 곡성군 오곡면에 축조된 오지제 제방에서 '2023년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가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템,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하천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은 국가하천 하천 수위를 측정해 자동으로 배수문을 제어하는 시스

템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수해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유역 등 관내 하천의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섬박람회 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만든다

오늘 여수문화홀서 설명회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종합기본계획 수립이 오는 6월 완료됨에 따라 여수시는 기본계획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수시는 12일 여수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안) 설명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설명회 의견서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당일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시민은 '여

수시-여수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다보보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박람회의 행사장이 돌산읍과 화정면, 남면 등으로 섬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설명회가 박람회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설명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반영을 거쳐 오는 6월 종합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례-더불어민주당 지역위, 당정협의회 성료

현안 논의·소멸위기 극복 결의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구례군 김순호 군수 및 실과장 등 30명이 참석해 4개 분야 16개 현안 사업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먼저 체류형 관광객과 생활인구 확대 유지를 위한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오산권역 관광 클러스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산동 온천 CC ▲지리산 케이벨라 ▲섬진강 경관형 보도교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국비 확보 활동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민선8기에서 새롭게 개척해 나갈 치유·힐링 분야에서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탄소중립 휴 살리기 ▲지리산 자유농업캠퍼스 조성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 휴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회토론회, 박람

회 개최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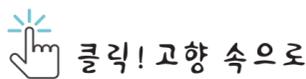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는 ▲국도 18호선(구례읍-구례구역)과 19호선(남천IC-경남 화개면) 확·포장 ▲공공기관 이전 집적화 등에 대해 향후 당과 전남도, 구례군의 역할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림개발 분야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축소 ▲산지 관리 법령 등 개정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유지를 각각 건의했다. 구례군은 전체면적 중 임야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의해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 인구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순호 군수는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서동용 지역위원장도 "논의된 구례군 현안 사업들의 국비 확보와 건의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서강동 지사협, 사랑애 밑반찬 사업 추진

여수시 서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저소득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위기가구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애 밑반찬 Dream 사업'을 시작했다. 밑반찬 지원사업은 '사랑애 꿈 Dream Happy! 서강!!' 특화사업으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를 선정해 월 1회 밑반찬을 전달하

고 안부 확인을 겸하면서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선환 협의체 위원장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실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주암면 마중물보장협,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

순천시 주암면마중물보장협의체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 42가구에 위문품(카네이션, 농산물꾸러미)을 전달하며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안부를 확인하며, 카네이션과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선물해 이웃 사랑을 나눴다. 조영식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장

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향상 이웃을 살피고, 이웃에게 힘이 되는 주암면마중물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흥찬 주암면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암면마중물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서 기자



보성경찰, 치안성과관리 전략보고회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11일 보성경찰서 4층 보경마루에서 각 과·계장 및 파출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성과관리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까지의 치안성과 중간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히 2023년도 체감안전도 및 치안고객만

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지금까지 보성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치안정책 및 실현을 추구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이 안전한 보성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